

‘아름다운 샘’은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호(號)인 ‘가천(嘉泉)’의 순우리말입니다.

02-03 **특집**

신규 의료진 영입
심장, 암 등 중증 분야 강화

04 **이모저모**

제17회 암예방의 날
유공자 포상 등

05 **미디어 들여다보기**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

06 **고객의 소리**

고객의 마음에 감동을~
친절 직원 소개



가천대 길병원 암·심장 등 전문의료진 신규 영입

가천대 길병원이 3월 암·심장·응급 등 분야별 신규 전문의를 영입했습니다. 심장 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피부암 등 중증 질환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들이 가천대 길병원의 새 가족으로 환자분들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최상의 암 치료, 나아가 예방과 관리까지 수행

3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암예방의 날'입니다. 인천지역암센터인 가천대 길병원은 제17회 암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암 예방과 조기 발견,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www.gilhospital.com 진료예약·문의 1577-2299

등록일 2008년 7월 29일 | 등록번호 남동 라 00014 | 발행인 이태훈 | 편집위원 가천대 길병원 홍보실
디자인 (주)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24년 가천대 길병원의 새 얼굴! 신임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갑상선암센터(외과) 이근철 교수

▶ 진료분야
갑상선암, 로봇수술,
부갑상선질환수술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	
오후		●		●	

갑상선암센터(외과) 최재봉 교수

▶ 진료분야
갑상선암, 그레이브스병,
부갑상선종양, 로봇수술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
오후	●				●

유방암센터(외과) 김현직 교수

▶ 진료분야
유방종양, 기타유방질환,
외과중환자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		

방사선종양학과 이준교 교수

▶ 진료분야
뇌·척추종양, 유방암,
대장·직장·항문암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오후	●		●	●	

종양내과 배지홍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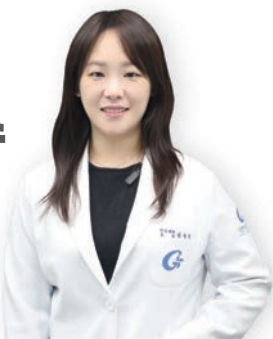
▶ 진료분야
소화기암(간담췌·위·대장·
직장암), 고혈압, 심근경색,
원발부위불명암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		
오후	●				●

심장내과 김형운 교수

▶ 진료분야
심부전, 판막질환,
고혈압, 심근증, 심장이식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	

심장내과 원윤선 교수

▶ 진료분야
협심증, 고혈압,
심근경색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

심장내과 최성화 교수

▶ 진료분야
부정맥, 심방세동, 심실빈맥,
인공심장, 제세동기,
심장재동기화 치료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오후					

★ ★ ★

가천대 길병원 암·심장 등 의료진 신규 영입 - 13개 진료과 전문의 22명 3월 1일자 영입 -

가천대 길병원이 암·심장·응급 등 분야별 신규 전문의를 영입했습니다.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전문의는 총 22명으로, 심장내과(3명), 외과(3명), VIP건강증진센터(2명), 응급의학과(5명) 및 외상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종양내과, 피부과, 통합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각 1명씩) 의료진이 환자들과 동행합니다.

재활의학과 유명은 교수

▶ 진료분야
사경, 발달지연,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심장, 호흡재활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	
오후		●			

안과 신영인 교수

▶ 진료분야
녹내장, 백내장,
신경 질환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		●	
오후					●

피부과 박상현 교수

▶ 진료분야
피부암, 피부외과,
색소질환, 기타 피부질환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	●		●
오후					●

외상외과 전세범 교수

▶ 진료분야
복부·다발성·중증외상,
외과중환자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신범수 교수

▶ 진료분야
폐암, 비결핵항산균폐질환,
폐결핵, 간질성폐질환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
오후		●	●		

VIP건강증진센터 이재혁 교수

▶ 진료분야

비만, 금연,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예방접종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
오후		●	●		

VIP건강증진센터 송정윤 교수

▶ 진료분야

위장관 질환, 내시경 검사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	

통합내과 손경준 교수

▶ 진료분야

내과질환(임원전담전문의)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
오후		●	●		

영상의학과 윤성진 교수

▶ 진료분야

복부영상의학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암관리 사업 유공자 포상 및 암예방 서포터즈 발대식 등



가천대 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는 3월 21일 오후 병원 대강당 가천홀에서 제17회 암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

는 가천대 길병원과 인천광역시, 각 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지역 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암관리 사업 유공자, 암예방 서포터즈, 암 환자 및 가족, 인천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가암관리사업 유공자 및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암예방 서포터즈 발대식, 암예방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퍼즐 완성 퍼포먼스, 암 예방 OX퀴즈 이벤트 순으로 진행됐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암으로부터 멀어지고, 행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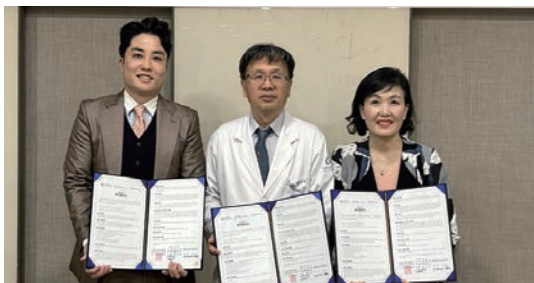
더 가까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인 인천지역암센터는 2011년 전국 사립대병원 최초로 지역암센터로 선정됐다. 섬이 많은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국가 암관리 및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암검진 수검률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천지역암센터는 2022년과 2023년도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5명 초청 치료
인천시와 함께하는 의료지원 사업 일환 (3/14)**

1992년부터 448명 어린이에게 새생명 선물



**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 유럽 의료기기 인증
가천대시간호과학연구-케이바이오솔루션**

의료기기 기업들의 MDR, CER 등 획득 노력



**감염관리실, 손위생 우수 부서 직원 포상
손위생 수행도 및 적합여부 평가 (3/25)**

3개 부서 및 직원 5명에 포상



**가천갤러리, 길에 붓꽃이 피다 전시 개최
암 환자들의 캘리그래피 작품 선보여**

따뜻한 위로의 말로 감동과 위로



**가천대 길병원 자회사 가천누리
해남고구마 영상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3/12)**

장애인기업 가천누리, 미디어 제작 역량 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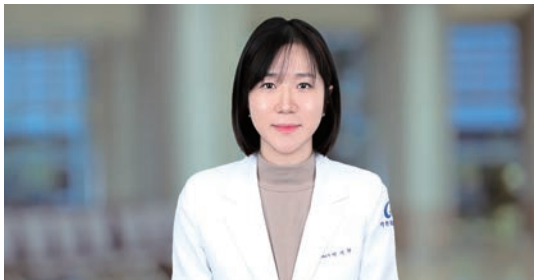
**외과 백정흠 교수, 보건복지부 암예방의 날
맞아 대통령 표창 (3/21)**

대장암 다학제 진료 시스템 구축 등 공로



**심장내과 신미승 교수
남동구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강의 (3/20)**

지역 주민 대상 찾아가는 건강강좌 계속



**외과 박지현 교수
일본위암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위암 수술 시 효과적인 에너지절삭 기구 연구



**내분비대사내과 이시훈 교수, 두바이 개최
세계내분비학회 조직위원 참여 (3/1)**

한국인 유일 조직위원, 내분비 미래 지식 공유

미디어 들여다보기

미디어
핫클립

▶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

KBS <아침마당> [3/7]
비만과 골다공증

▶ 정형외과 심재양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13]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신경과 박기형 교수

JTBC <위대한 식탁> [3/16]
나를 잃어버리는 치매

▶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

JTBC <한 번 더 리즈시절> [3/16]
현대인의 만성질환, 수면장애

▶ 안과 백혜정 교수

TBN '닥터히어로' (매주 3월 매주 금요일)
소아 사시 등 안과 질환

▶ 산부인과 이승호 교수

중앙일보 <부인암 위험 징후> [2/29]
약취나는 분비물 등 주의 깊게 살펴야

▶ 피부과 백진옥 교수

중앙일보 <아토피 피부염> [3/4]
아토피 피부염 팩트체크!

▶ 정신건강의학과 조서은 교수

한국경제 <판다 푸바오의 정서적 효과> [3/4]
동물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될까

▶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

한국경제 <제로 칼로리 음료> [3/12]
인공감미료 부작용 이슈

▶ 호흡기알레기내과 강성운 교수

경향신문 <알레르기 유발 요인> [3/15]
한국인 알레르기 유발물질 집먼지 진드기

▶ 감염내과 박윤선 교수

중앙일보 <한국, 결핵 OECD 선두권> [3/23]
약 복용 소홀하면 내성으로 치료 어려워

▶ 내분비대사내과 이대호 교수

조선일보 <당뇨병 유전> [3/25]
당뇨병 유전자 발현 막는 습관

▶ 안과 남동훈 교수

경향신문 <봄철 유행성각결막염 유행> [3/26]
알레르기결막염과 유행성각결막염

▶ 치과 조진웅 교수

경인일보 <양악수술> [3/27]
위턱 아래턱 부정교합 교정하는 양악수술

고객의 소리



소아청소년과 류일 교수

소아청소년과 병동에 한달 정도 입원해 치료받는 동안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류일 교수님을 포함해 모든 의료진들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원 중 최고의 의료진들이었어요. 덕분에 저희 아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거예요.

김OO님 보호자



척추센터 유병래 교수

올해 1월 종양내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척추센터 유병래 교수님 협진을 받게 됐습니다. 치료에 확신이 없던 제가 교수님을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불안하고 의심했던 마음이 부끄러운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제 병에 무지했던 저에게 잘 알려주시고 위로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OO님



내분비대사내과 김병준 교수

저희 어머니께서 수차례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병원 방문을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3개월에 한번 김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은 오히려 병원에 다녀 오면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교수님의 응원 덕분에 어머니도 건강해지시려 더욱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교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를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OO님 보호자



고객상담실 권오숙 파트장

남편이 루게릭 진단을 받고 매달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라 충격이 컸는데, 얼마 전에는 폐렴 증상으로 응급실까지 오게 됐습니다. 입원과 퇴원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을 때 권파트장님 배려 덕분에 퇴원하지 않고 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온 가족이 많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OO님 보호자



내과계집중치료실 노은성 간호사

보름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는 노은성 선생님의 천사 같은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모든 의료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인천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노 간호사님과 길병원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유OO님



인공지능병동 장현지 간호사

퇴원 전날, 챙겨할 것도 많고 퇴원해 집에 가면 선생님들이 돌봐주신 것처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장 간호사님이 엄마관리수첩이라고 예쁘게 수첩도 만들어 주시고 주사 맞을 부위도 체크해 주셔서 정말 눈물이 왈칵 나와서 참기 어려웠습니다. 업무로 바쁠텐데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최OO님

친절 우수 직원

2024년 2월 3주차~3월 2주차

부서 | C7AW, 피부과외래, 분만실, R10W, M7W, I126W, 심혈관낮병동, I136W, C9BW, 통원치료센터, A168W, R7W

진료부 | 내분비대사내과 김병준 **마취통증의학과** 조누리 **산부인과** 전승주 **소아청소년과** 류일 **신경외과** 유찬중, 유병래, 신동원 **심장내과** 이준표 **외과** 박흥규, 이운기 **재활의학과** 전충재 **피부과** 백진욱 **혈액내과** 이재훈, 김윤정, 김형선

간호본부 | **외래간호2팀** 박향숙, 김혜영, 황지선, 손윤희, 정연아, 이신혜, 강수연 **입원간호1팀** 강복순, 고유리, 김보영, 김수정, 김진아, 노설희, 박민주, 박혜인, 백지윤, 서유경, 서하영, 신연숙, 유정민, 이요한, 이정해, 천리향, 최세영, 한미에 **입원간호2팀** 김보완, 김성옥, 김소연, 김숙한, 김은비, 김지수, 노소진, 문승원, 박민주, 선예지, 성유진, 신연주, 양은진, 오수현, 윤채원, 이나경, 이상록, 이상지, 이원이, 이주영, 장현지, 조아라, 최미진, 최지나, 최지은, 한보라, 홍수빈 **입원간호3팀** 김재은, 김희원, 도기욱, 박다솔, 서현숙, 서혜영, 오주영, 윤가영, 이지수, 이지은, 이채은, 이춘혜, 임현선, 장수정, 정진아, 최주희, 황선미 **중환자간호팀** 오영준, 조은별, 공예림, 유수경, 전지원, 윤정민 **특수간호팀** 우형숙, 강민지 **수술간호팀** 이혜지, 공미진, 최경진, 손가희, 박선아, 김유의 **신경과외래** 이연정 **심혈관낮병동** 장임재(NA)

행정 | 고객상담실 권오숙 원무팀 변부경 재난방재팀 이도훈, 최민혁, 이인주

가천대 시그니처 교양강좌 지성학, '도전과 응전' 주제로 10회 강연 스타트업 대표, 축구해설가, 영화감독 등으로 라인업 확정

대학 홈페이지, 공식유튜브로 강의 일반에 공개

가천대학교의 대표 교양강좌인 '지성학'이 3월 12일을 시작으로 한 학기동안 10회 릴레이강연을 진행한다. 이번학기는 인류역사와 문명의 흥망성쇠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분석한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의 문구를 인용해 현재와 미래사회가 제시하는 도전에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강연으로 기획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강의와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공학·사회·과학·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로 펼쳐진다. 3월 12일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의 'AI반도체 창업' 강의를 시작으로 한양대 국제대학원 전영수 교수의 '인구변화와 미래기회', 축구해설가 박문성 위원의 '손흥민이 전설인 진짜 이유', 영화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의 '당신이 선택한 스토리텔링',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의 '기후위기 시대, 기후시민 되기' 前 사법연수원장 성낙송 변호사의 '행복한 사' 등 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 △이선희 가천대 교수 △엑스 과학커뮤니케이터 △천양현 코코네 회장 △김빛나 가천대 교



수 등 모두 10명이 강단에 선다. 지성학 강좌는 지난 2007년 처음 개설된 강좌로 학과와 학년 구분 없이 수강하고 있다. 수강신청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가천대 시그니처 교양강좌다. 이번 학기 지성학은 1000명 가까운 학생이 수강한다. 그동안 고 이아령 문학평론

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과 명사들의 강연이 325회 진행됐다.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특강영상 전편을 대학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길여 총장은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미래를 개척하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천 ESG센터 1차 성과교류회 가져, 우수 프로그램 우수성과 시상 및 발표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ESG 선제적 대응 전략 실천



가천대 ESG센터가 3월 15일 가천관 B101호에서 1차년도 성과교류회를 가졌다. 이날 성과교류회에는 윤원중 부총장, 서원식 대외협력처장, 유재

언 센터장, 스마트시티학과 홍준희 교수와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성과교류회는 윤원중 부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프로그램별 우수참여자 시상식이 있었고, 유재언 센터장이 역할과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이후 스마트시티학과 홍준희 교수가 ESG 관련 탄소중립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프로그램별 우수참여자들(6팀)의 성과발표와 ESG 연합서포터즈 발대식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대표로 시상한 학생들은 총 8명으로 '맛집으로 로

그인', '지구를 지키는 가천인', 'D.I.Y' 팀은 지역 소상공인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외국어 메뉴판 제작부터 굴 껍질을 활용한 친환경 핫팩 사용 등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텃밭프로젝트', '봉주르 전공연계 봉사활동' 팀은 직접 재배한 작물을 반찬으로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는 등 봉사활동을 통해 재능을 기부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었다. '두드림 서포터즈', '아르미 서포터즈' 팀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멘토링 활동을 했다. 가천대 ESG센터는 대학의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과 같이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제1회 한미 센서 및 전기화학 워크숍' 개최 국내·외 센서 및 전기화학 전문가 초청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

가천대학교는 신소재공학과 주관으로 3월 11일 비전타워 컨벤션센터에서 미국 노틀담대학교, 아이오와대학교 및 국내대학교, 정부출연연구소, 반도체/전기화학관련 기업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미 센서 및 전기화학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신소재공학과가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을 연사로 초청해 국제 산·학·연 공동연구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발표한 연구내용은 Frontier in Chemistry (IF 5.5) 및 Sensors and Actuator Report (IF 6.37)에 게재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The JoongAng Plus | Leader & Reader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중앙일보

'청춘 이길여' 기획 연재 시리즈

92세의 나이에 '우주 최강'이라는 '비현실적 동안'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건강 비결과 교육 철학을 들어보시죠. '젊은 노년' 웰에이징의 비밀, 국내 대표 여성 지도자의 성장 스토리, 따뜻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조명합니다.



◀ 청춘이길여 페이지 바로가기



90대에도 말춤 ... 청춘 이길여의 비결은 열정

신체나이 60대,
92세의 자기관리법

“내 이름이 뭐라고!”

지난해 5월 10일, 가천대 축제 무대에 오른 이길여 총장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가수 사이에 앞서 등장해 말춤을 추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347만 조회 수를 기록했고 '91세라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 총장은 웰에이징(well-aging)의 아이콘이다. 중앙일보 구독 서비스 '더 중앙 플러스'는 '청춘 이길여'에서 생활 습관부터 운동·소통법·리더십까지, 그가 90대에도 푸르른 비결을 소개한다.

'비행기 안에서 눈 안 붙인다' '괴곤해서 몸살이 나는 걸 이해 못 한다'는 등 이 총장의 체력에 관한 '증언'들은 많다. 그는 코로나도 피했다. 지난해 한글날 연휴에는 사흘 내리 골프를 치는 '괴력'을 자랑했다. 그의 신체 나이는 열마일까.

이 총장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는 김병원의 김우경 원장은 '60대 중반'이라고 가능했다. '골밀도가 50대 못지않다'는 이야기는 병원 내 비밀 아닌 비밀이고, 최근엔 장수인자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추가됐다. 이 총장은 “환갑 넘은 후배보다 더 높은 83”이라고 말했다. HDL 20~24세 여성의 평균 수치는

158cm 아담한 체격과 달리 대식이 아침은 녹즙·견과류·사과 등 먹고 즐기는 특식은 햄버거·스테이크

TV 볼 때도 차 타고도 계속 운동
10년 전부터 레이저 시술 피부관리

69mg/dL이다가 70세에 59mg/dL까지 내려간다.

타고난 체력을 뒷받치는 건 식습관이다. 158cm에 59kg의 아담한 체격과 달리 그는 '대식가'다. 아침 식탁엔 녹즙 한컵, 계란 요리, 요구르트, 콩물이나 단백질 파우더를 넣은 우유, 견과류, 고구마나 감자가 올라온다. 여기에 삶은 뒤 다시 올리브유를 뿌려 익힌 토마토와 생 파프리카와 양배추 등을 즐긴다. 후식은 늘 사과.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가면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에 영양제는 비타민·콜라겐·유산균·바이오틴으로 제한한다. 외식할 땐 늘 스테이크를 주문한다.

최근

즐기는 '특식'은 햄버거.

미국 유학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소울푸드다. 김경민 비서는 “설마 다 드실까 싶어서 (버거킹와 피) 주니어로 사 갔다가 혼이 난 적 있다”면서 “레귤러 사이즈에 프렌치프라이, 콜라

까지 세트 주문한다”고 귀띔했다.

이 총장은 늘 오후 11~12시 취침, 오전 7~8시 기상을 지킨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과 요가로 몸을 풀 뒤 본격적으로 걷는다.

집 안에 기구를 들인 운동방을 갖췄고 최근엔 수영 위킹을 위해 온수 풀을 만들었다. 주변에선 “1분 1초를 가만히 안 계신다”는 말이 나온다. 차에서도 손목·발목을 돌리거나 허벅지 운동을 하고 TV 볼 땐 누워 다리를 들었다 놔둔다.

‘우주 최강 동안’이라는 수식어는 술 많은 머리와 잡티가 도드라지지 않은 피부, ‘세월을 거스를 수 없다’는 목과 손의 깊지 않은 주름 때문에 붙었다.

‘일본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온다’는 소문이 날 정도지만 상당 부분은 집안 내력이다. 30~40대 때만 해도 곱슬에 머리카락이 워낙 굵어서, 파마하려면 술을 쳐내야 했다.

피부 노화가 느린 건 어머니를 닮아서란다. 매일 생수 등 수분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한다.

최근엔 학생들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젊게 보이려는’ 노력이 불

이길여 총장은 사흘 내내 골프를 칠 정도로 건강한 체력을 자랑한다.

[사진 가천대. 유튜브 캡처]

가피해졌다. 10여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는데, 동안의 아이콘이 된 건 뉴스워크 표지 모델이 됐던 2012년 즈음부터다.

일본 패션디자이너 이사하라 사치코는 『50 이후, 인생의 멋을 결정하는 습관들』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일,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썼다. 이 총장의 멋 내기가 그대로다.

신뢰감 주는 정돈된 스타일을 고수한다. 흐트러짐 없는 짧은 머리는 30년 연의 미용사, 허리가 들어가는 각진 재킷은 수십 년 단골 양장점 몫이다. 스카프나 브로치, 목걸이·반지·귀고리는 생략한다. 멋부림 포인트는 매니큐어. 20년 넘게 핑크빛이 도는 갈색을 바르고, 남이 보지 않는 발톱은 새빨갭게 물들인다.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다.

그는 “건강하니까 열정이 넘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으니까 건강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 아직도 학생이나 환자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내 건강의 기준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느냐니까요”

이도는 기자 lee.doeun@joongang.co.kr